

「아버지에의 便紙」研究(I)

孫 永 林

Über 「Brief an den Vater」

Son, Yeong-Lim

〈 目 次 〉

- | | |
|-----------------|---------------------------------|
| 1. 意識的 構成 | 3-2. 父子間の 葛藤 |
| 2. 父子關係 | 3-3. 子息과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와의
函數關係 |
| 2-1. 幼年時節의 父親像 | 4. 結 語 |
| 2-2. 絕對者로서의 父親像 | 略字表 |
| 2-3. 現實的 父子關係 | 參考文獻 |
| 3. 父子間の 對決 | |
| 3-1. 父女間の 對立 | |

Zusammenfassung

Dieser Brief beginnt, <Liebster Vater. Du hast mich letzthin einmal gefragt, warum ich behaupte, ich hätte Furcht vor Dir. Ich wußte Dir, wie gewöhnlich, nichts zu antworten, zum Teil eben aus der Furcht, die ich vor Dir habe, zum Teil deshalb, weil zu Begründung dieser Furcht zu viele Einzelheiten gehören, als daß ich sie im Reden halbwegs zusammenhalten könnte.>

Bei diesem < Brief an den Vater > handelt es sich um die unverstündlich entgegengesetzten Beziehungen zum Vater des Dichters. Der Dichter hatte eine Zeitlang die Meinung, durch diesen Brief eine Klärung der peinlich stockenden, schmerzhaft verharschten Beziehungen zum Vater herbeizuführen. Tatsächlich wäre wohl eher das Gegenteil erzielt, die Absicht des Briefes, sich dem Vater begreiflich zu machen, keineswegs erreicht worden. Hier kann man diese Arbeit kaum mehr einen Brief nennen, sie ist ein kleines Buch, dabei gewiß eines der merkwürdigsten und bei aller Einfachheit des Ausdrucks schwierigsten Dokumente über einen Lebenskonflikt. Und so will der Schreiber bei diesem Aufsatz die obererwähnte Konflikt weder in der Anschauung des Sohnes noch in derselben des Vaters auslegen und rechtfertigen.

1. 意識的 構成

「사랑하는 아버지 !

당신은 전에 제가 당신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제가 왜 주장했는지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전 서너배처럼 아무런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당신에게 품고있는 두려움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이 두려움을 설명하기 위해선 너무도 많은 조그마한 부분까지도 touch하지 않으면 안되며, 또한 口頭로는 그 절반도 매듭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편지로 당신에게 답하고자 합니다만, 그런데도 그것은 역시 대단히 불완전한 것밖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글을 쓰는데 있어서도 두려움과, 온갖 그 결과는 당신에 대한 저의 마음을 저해하며, 게다가 素材의 방대함이 저의 기억력과 이해력을 훨씬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¹⁾ (H. 119)

이렇듯 序頭로 시작되는 이 便紙는 1919年 11月 Prag 北方 Liboch 近郊의 마을 Schlesen 에 휴가차 장기체류하고 있었을 때 쓰여진 것이다. 같이 묶고 있던 Brod의 證言을 빌어 보면,

「이 편지는 100페이지 이상되는 방대한 것이지만, 실제로 아버지에게(더구나 어머니를 통하여) 건네주려고 한 것으로서 쓰여진 편지인 것이다. 이것은 나와 Franz의 대화에서 증명되는 것이다. 어느 때가 Franz는 이렇지도 저러지도 끔찍 달삭하지 못하는 두통의 씨앗이 되고 있는 아버지와의 관계에 이 편지로 절개수술을 시도할 심산이었다. 그러나 아버지가 정녕 이 편지를 읽었더라면 오히려 그 반대 결과가 되어 자신을 이해 받으려고 한 이 편지의 의도는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다. 예상대로 어머니는 이 편지를 전달할 수가 없었다. 아마도 몇 마디 위로의 말을 전낼 정도로 그녀는 Franz를 달래었다.」²⁾ (Brod 22~23)

우리말로 번역하더라도 200자 원고지로 200매가 훨씬 넘을 이 文書는 그分量만으로도 좀 이상할 정도며, 아무래도 便紙라고 하기엔 釋然하지 않는 느낌을 준다. 그러나 이것은 틈틈없는 意思傳達의 機能을 가진 본연의 便紙인 것이다. 더구나 아버지 앞으로 막다른 곳에 다다른 父子關係를 打開하기 위하여 어머니의 손을 빌어 건네려한 私信이었다. 당시 자식은 36才, 수편의 作品을 이미 세상에 내놓은 作家로서는 더더욱 이상야릇한 느낌이 드는 것이다. 게다가 어쩌면 자식이 아버지에게 대한 私信의 形式을 빌어 하나의 作品을 쓰려한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마저 주는 것이다. 당시 그의

1) 이것은 Kafka의 「아버지에게 편지/Brief an den Vater」로 Max Brod에 의해 出刊된 Kafka全集 第6卷 『시골의 婚禮準備』에 실려 있으며, 이 편지에 관해선 筆者가 「Kafka의 信仰과 思想」이란 題下에 그의 宗教的인 成長課程을 一部 touch한 바 있다.

Franz Kafka: Hochzeitsvorbereitungen auf dem Lande und andere Prosa aus dem Nachlaß, Fischer Taschenbuch Verlag 1976, S. 119—162 (F. Kafka Gesammelte Werke, Hg. von Max Brod, Taschenbuchausgabe in 7 Bdn. Bd. 6)

拙稿: 韓國海洋大學論文集 第14輯〈人文社會科學編〉1979, S. 127~142 參照.

2) Max Brod: Über Franz Kafka, Fischer Taschenbuch Verlag 1975 (Fischer Bücherei 1496).

戀人이었던 Milena 에게 보낸 便紙에 의하면,

「내일 사시는 곳으로 <아버지에의 편지>를 보내겠습니다. 소중히 간수해 주십시오. 아마 어느 때고 한번은 아버지께 건네야겠다고 생각될지 모르니까요.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Morgen schicke ich Dir den Vater-Brief in die Wohnung, hob ihn bitte gut auf, ich könnte ihn vielleicht doch einmal dem Vater geben wollen. Laß ihn womöglich niemand lesen.」³⁾
(M. 61)

이처럼 이 「아버지에의 편지」에는 아들 Franz 와 아버지 Hermann 과의 關係의 여덟지 석연하지 않는 不可思議가 象徴적으로 浮刻되어 있는 것이다. 당시 유럽의 유행적 풍조였던 이러한 父子間의 對立을 Kafka 역시 아버지로부터 느꼈던 것은 사실일 것이다. 때문에 그는 결혼하여 자신의 가정을 이룸으로써 獨立하며, 나아가 아버지로부터의 <精神的 支配權/Geistige Oberherrschaft>⁴⁾에서 벗어나려 하였으나, 그의 생애의 목표였던 이 獨立計劃이 세번이나 실패하자 마침내 그는 아버지와의 對立을 總決算하기 위하여 이 「아버지에의 편지」를 썼던 것이다.

게다가 이 편지는 흔히 있음직한 예사편지로 단정하기엔 뭔가 곤란한 그 방대함과 의식적인 구성을 갖추고 있어, 여기에 심상하지 않는 動機가 作用하고 있음을 은연중에 나타내고 있다. 그는 이 편지에서 자신이 36세가 되기까지의 生涯를 돌이켜 그것이 여하히 아버지와의 관계에 의해서 作用되어 왔는가를 總括하려 하였다. 결국 이 便紙는 말하자면 그의 自叙傳的 試圖라 할 수 있게된다. 그가 이것을 시도하게 된 것은 이루어질 것 같았던 세번째의 結婚이 아버지의 反對로 挫折되고, 동시에 그 때문에 그가 아버지로부터 救援을 받았다고 하는 殘酷한 擲揄/Ironie 와, 게다가 이 운명적인 Ironie 가 자신의 生涯를 여하히 歪曲시켜 왔는지, 그것을 깡그리 파헤치고 싶은 衝動에서이리라 생각되는 것이다.

2. 父子關係

2-1. 幼年時節의 父親像

子息 Franz 는 자신과의 比較로 아버지 Hermann 의 特徵을 이렇게 總括하고 있다.

「우리 두 사람을 비교해 봅시다. 전 아주 간략하게 말해서 어떤 카프카의 素質을 지닌 Löwy

3) Franz Kafka: Brief an Milena, Fischer Taschenbuch Verlag 1974 (Fischer Bücherei 756).

4) H. 124 및 Hartmut Binder: Kafka Kommentar II, Winkler Verlag, München 1976, S. 433—434의 이 <Oberherrschaft>에 대한 설명을 보면, 「In einem Brief an seine Schwester Elli über Erziehungsfragen hebt Kafka <die ungeheuerliche Übermacht des Elternpaares gegenüber den Kindern während vieler Jahre> hervor (Br. 344), und in einem Schreiben an Felice bekennt er, die Bewunderung, die er seinem Vater entgegenbringe, sei vielleicht so groß wie seine Angst vor ihm (F. 452).」

Heinz Politzer: Franz Kafka. Der Künstler, Suhrkamp Taschenbuch Verlag 1978, S. 441의 比喩를 보면, 「Der Brief starrt von Wörtern wie <Oberherrschaft>, <Tyrann>, <König>, <Herrscher> und so weiter.」

系의 인간입니다만, 이素質이라고 하는 것은 카프카의生活意欲, 사업욕, 정복욕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떤 Löwy의 刺戟에 의해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며, 이 자극은 보다 비밀리에, 또 열려스럽게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여, 그리하여 이따금 실로 아무 작용도 하지 않게 하는 代用物인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당신은 頑強, 健康, 食欲, 聲量, 辨說의 才能, 자기만족, 세상을 알잡아 보는 태도, 인내력, 침착성, 세상 물정에 밝은 것과 일종의 두툼한 배짱이라는 점에서 진정 틀림없는 카프카系의 인간입니다만, 물론 이러한 장점에 따르는 단점과 약점도 갖추고 있어, 당신의 성미와 잦은 불같은 성미가 당신을 그 절절속으로 몰아넣는 겁니다. 당신은 어쩌면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완전한 카프카는 아닌것 같습니다. 당신을 Philipp 叔父나 Ludwig 叔父, Heinrich 叔父와, 비교해 보는 한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것은 묘한 일이지만 저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숙부들은 모두가 당신보다는 명망하고 원기왕성하며 구애됨이 없고 마음 편해 보이며 당신만큼 근엄하지 않았읍니다.〈이 점에서 전 여하간 당신으로부터 많은 유산을 상속 받았으며, 그것을 너무도 멋지게 관리했던 것입니다. 물론 당신이 갖고 계시는바 그 유산과 어울리는데 필요한 것을 저는 자신의 본질 속에 갖고 있지 못합니다.〉그러나 다른 입장에서 생각하면 당신은 이 점에 있어서 여러가지 다른 時期를 경험해 왔으며, 당신의 아이들, 특히 제가 당신을 실망시키고 집에서 의기소침하게 하기까지는 당신은 훨씬 밝은 기분이었을 겁니다. (낯선 사람들이 오면 당신은 실로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H. 121)

주의할 만한 것은 아버지 Hermann에게 Kafka 家의 사람들이 계승하고 있는 外向的이고 現實的인 資質外에 反Kafka 的 일종의 氣鬱症이 있었다는 관찰이다. 그리하여 이것이 Hermann의 수월하지 않았던 生業이 刻印한 어두운 그림자임을 Franz는 看透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인식이 아버지에 대한 열등감과 빛을 더더욱 무겁게 한 것은 사실이나, 동시에 그는 자학이라는 형태로 밖엔 자신에게 용서할 수 없었을 만큼 깊은 동정을 몰래 아버지에게 보내고 있다.

이어서 幼年時節의 아버지와의 구체적인 접촉을 나타내는 부분을 살펴보면,

「아주 어렸을 때의 당신의 교육방법은 지금에 와서 물론 직접 기술할 순 없읍니다만, 후년에 와서의 하시는 방법과 Felix에 대한 당신의 취급방법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 당시의 당신은 지금보다 젊었으며 따라서 훨씬 썩썩하고 거칠며 야성적이고, 또 훨씬 무관심했기 때문이며, 게다가 완전히 장사에만 몰두하여 제게 모습을 보이시는 것은 하루에도 한 번쯤 있을까 말까며, 그 때문에 점점 심각한, 버릇이 되어 예사롭게 되는 일이 없는 그런 인상을 제게 주었다는 것이 분명 날카롭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H. 122)

「직접 기억하고 있는 것은 어렸을 때의 어떤 사건 뿐입니다. 당신도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어느날 밤 제가 물이 먹고싶어 계속 운적이 있었읍니다. 별로 목이 타서도 아니고 누군가를 놀라게 해주고 싶은 기분도 들고, 또 스스로 즐기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몇 번인가 호된 고함소리도 소용이 없자 당신은 저를 침대에서 끌어내려 낭하로 끌고나와 문을 잠그곤 절 혼자 내의차림으로 세워 두었읍니다. 전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그 때는 달리 밤의 휴식을 취할 수는 결코 없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저는 이 일로 당

신의 교육방법이나 그것이 제게 미친 작용의 특징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후 제가 훨씬 앞전해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일로 마음에 상처를 받았던 겁니다. 별 까닭도 없이 물을 먹고 싶어 한다고 하는 저에게 있어서의 당연성과 끌어내어진다고 하는 法外的인 두려움과를 바르게 결부시키기란 저의 성질로 보아 아무래도 불가능했습니다.」(H.122)

여기에 나타나는 아버지의 像은 그가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독재적 폭군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흔히 있는 완고한 아버지의 모습일 것이다. 밤중에 물을 달라고 울고 있는 소년 Kafka를 아버지가 낱하로 끌어내어 내의차림으로 세워두었다고 하는 것은 좀 극성스런 엄한 아버지면 흔히 있음직한 일이지만 감상적인 Kafka에겐 그것이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후에도 가시지지 않는 것이다.

「그로부터 몇년이 지난 후에도 거대한 남자가, 나의 아버지가, 최후의 심판이 별 이유도 없이 나타나 밤중에 날 침대에서 낱하로 끌어낼지도 모른다. 결국에는 내 자신이 그에게 있어서 는 아무 쓸모없는 그런 인간이라고 하는 몹씨도 피로운 상념에 들볶이게 되었습니다.」(H.122~123)

「그 당시의 일은 조그마한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절 이따금 지배하는,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이 감정은(물론 다른 관점에서 보면 고귀하고 풍요한 감정이기도 합니다만) 몇 번이고 당신의 영향에서 유래하는 겁니다. 전 조금은 격려받고 귀염받고 저의 길이 조금은 열려주었으면 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저의 길을 막고 말았습니다. 물론 저에게 다른 길을 가게 하려는 선의에서 나온 것입니다만. 그러나 제겐 그런 자격이 없었습니다. 예컨데 제가 거수 경례를 하고 행군하는 흉내를 낼라치면 당신은 절 고무격려해 주었습니다만 전 결코 장래에 군인이 되고싶어 하지 않았으며, 또 제가 왕성하게 식사를 하거나 백주까지도 절들여 마실 때면, 그리고 또 제가 뜻도 모르는 노래 흉내를 하거나 당신의 말 흉내를 내거나 하면, 당신은 절 격려해 주었습니다만 그런 일들은 저의 장래와 아무 관계도 없었던 겁니다.」(H.123)

「그 당시만은, 그리고 그 당시는 어떤 경우든 격려의 말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전 정말 당신의 드러난 육체에 이미 압도되어 있었습니다. 예컨데 지금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종종 탈의실에서 함께 옷을 벗은 일입니다. 전 비쩍 말라 여위어 꼬챙이같은데 당신은 건장하고 큰데다 몸이 딱 벌어져 있습니다. 탈의실에서 벌써 전 제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당신에 대해서만이 아니고 세상 전체에 대해섭니다. 왜냐 하면 제게 있어서의 당신은 모든 사물의 규범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탈의실에서 사람들 앞으로 나섰을 때는 조그만 해골같은 전 당신의 손에 매달려 불안하게 맨발로 점프대위에 올라서게 됩니다만 물이 무서워, 당신이 선의에서 제게 하는 겁니다만 실제로는 언제나 제게 심한 굴욕감을 주기 위해 시범을 보이는, 헤엄을 따라 쉴 수가 없는 겁니다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전 완전히 절망감에 빠져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저의 온갖 기분나쁜 경험이 그러한 순간에 완전히 조화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⁵⁾(H.123~124)

5) H. Binder: 上掲書 S.433에 보면 그후 Kafka가 Dora Dymant에게도 여기에 대해 이야기한 사실이 나타나 있다.

「Als kleiner Junge, als ich noch nicht schwimmen konnte, ging ich manchmal mit dem Vater,

「제가 당신의 정신적 지배권도 이와 상응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자수성가하신 분입니다. 그 때문에 당신은 자신의 의견에 절대적인 자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등의자에 앉은 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의견만이 옳고 다른 의견은 죄다 미친 것들이거나 과장되고 엉터리였다 비정상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의 당신의 자신은 굉장한 것이어서 당신이 하시는 말씀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 있을 리 없고, 뵈이든 당신이 옳다는데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또 당신이 어떤 일에 별다른 의견을 갖고있지 않을 때, 그 일에 관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의견은 예외 없이 틀렸다고 규정지워 버리는 일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예컨대 당신은 체크코인을 매도하는가 하면, 이번엔 독일인을 비난하고 다음엔 유대인을 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어떤 점이 틀렸다고 꼬집어내면 모르되 뵈이든 되어먹지 않았다고 몰아부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에 가서는 당신 이외엔 누구 한 사람 남지 않게 되는 겁니다. 당신은 세계 대해 모든 독재자가 갖는 불가사의 같은 요소를 지녀왔습니다. 독재자의 권위가 그 인간에 바탕을 두고 있어 그 사상에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고 하는 그 불가사의 같은 것 말입니다. 적어도 제겐 그렇게 생각되었던 겁니다.」(H.124)

後年の日記에도 이런 記述이 있다.

「물론 전 여기서도 罪責에 다다릅니다. 왜냐 하면 뵈 때문에 제가 이 세계에서 탈출하려 했습니까? <그>가 저를 이 세계에서, 그의 세계에서 살게 내버려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에 와서도 물론 전 이렇듯 분명히 날카롭게 대결하도록 허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의 제가 이미 별개의 세계인 당지의 주민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보통의 세계에 대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토에 대한 황야와 같은 관계에 있는 세계입니다.」(T.414, 1922. 1.28)

지나치게 엄격한 아버지와 反抗的인 子息과의 緩衝地帶가 된 것은 자식에겐 순하고 아버지에게는 순종적인 어머니다. 이러한 부창부수적 관계는 『變身/Die Verwandlung』이나 『判決/Das Urteil』에서도 표현되고 있지만 매개는 東洋流의 家長制度的인 것으로 생각된다. Kafka의 누이들과 戀人들에게서도 어딘지 모르게 이와같은 東洋的인 氣質이 엿보인다. 단편집 『시골의사/Ein Landarzt』를 아버지에게 바치고 있는 것을 보면——그가 <이 아버지에의 獻詞는 야유의 뜻입니다>고 변명은 하고 있지만——아버지로부터 어딘지 모르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心算이었다 아니할 수 없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어떠한 고상한 사상에서가 아니고 유년시절의 사소한 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일로 기분이 좋아져서 그 생각으로 가슴부풀어 집에 돌아와 그걸 말씀드리면, 그 답은 아이러니한 한숨이거나 아니면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거나 손가락으로 탁자를

der auch nicht schwimmen kann, in die Nichtschwimmerabteilung. Dann saßen wir nackt beim Buffet, ... Du mußt dir das richtig vorstellen, der ungeheuer Mann mit dem kleinen ängstlichen Knochenbündel an der Hand, wie wir uns zum Beispiel in der kleinen Kabine im Dunkel auskleideten, wie er mich dann hinauszog, weil ich mich schämte, wie er mir dann sein angebliches Schwimmen beibringen wollte und so weiter.」

두들기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펼친 나온 것을 본적이 있어>라든지, <넌 그제 탈이야>라든가, <내 머린 그렇게 편안하진 않아>라든가, <그런 것쯤 아무렴 어쩌냐>라든가, <마, 그럴 테지>라는 식의 답이었습니다. 물론 애써 고생하시는 당신에게 어리광스런 일로 뺨이든 감격해 주도록 기대를 거는 것도 무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일은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문제는 되려 당신의 매립적인 성질 탓으로 그러한 환멸이 어린아이에 대하여 언제나 원칙적으로 주어지지 않으면 안되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게다가 이 대립이 재료의 축적에 의해 계속 강화되어 당신이 이 따금 저와 의견을 같이할 때에도 습관적으로 의례히 통하게 되었다는 점과, 그리하여 어린아이의 환멸은 마침내 습관적 생활의 환멸이 아니고 모든 것의 규범이 되는 당신이라는 인간이 문제가 되는 이상 그 핵심에 적중하는 것이 되었다는 점, 이러한 점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H. 124~125)

「어렸을 때는 주로 식사때만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신의 교육도 대부분 식탁에서의 예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식탁에 나온 것은 모조리 먹어치우지 않으면 안되며, 음식투정을 해선 안되었습니다——그런데 당신은 종종 이런 걸 어떻게 먹느냐고 투덜대는 겁니다. 이런 건 <돼지나 먹는거다>고 하는가 하면, <저 짐승같은 게(식모를 말함)> 이런 걸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신은 자신의 왕성한 식욕과 특별한 기호로 뺨이든 재빨리 맹렬하게 큰 입으로 먹어치우기 때문에 어린아이 쪽은 서둘지 않으면 안되며, 그 때문에 식탁엔 음울한 침묵이 흐르게 되지만 그것은 다음과 같은 혼제에 의해 곧 파괴되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먹는거야, 애진 나중이야>, <더 빨리, 빨리, 빨리>, <이 봐, 난 벌써 다 먹었잖니>, 이런 식이었습니다. 뼈다귀는 씹어서는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괜찮았습니다. 초는 소리내어 들여마셔서는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괜찮았습니다. 까다로운 것은 빵을 똑바로 자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소오스가 묻은 칼로 자르는 것은 상관도 없었던 겁니다. 먹고 남은 지꺼기가 상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도 제일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은 당신 밑이었습니다. 식탁에선 식사에만 전념해야 하는데 당신은 손톱을 깎거나 썰기도 하고, 연필을 깎는가 하면 이쑤시게로 귀를 후비기도 했습니다. 제발 아버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겐 그만큼 절대적인 결정력을 가진 당신이 그러한 제율을 제겐 맡기시면서 자신은 그걸 지키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H. 126~127)

「육질의 효과를 높이는 것은 위협이었습니다. 이 수법은 제게도 쓰였습니다. 예컨대 <생선처럼 킁어버리겠어>라는 말을 들을 때면 전 몸싸 두려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보다 더한 일이 일어날 리 없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지만(어렸을 때 물론 그런 건 몰랐습니다만) 그런데도 당신의 위력에 대한 저의 상상에서 미뤄보면 당신은 능히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붙잡으려고 고함을 지르면서 식탁 주위를 빙빙 돌아다닌 것도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거의 붙잡힐 리도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만 언제나 그런 식이 되어 결국은 어머니가 구원을 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린아이의 눈에는 당신의 은총에 의해 다시 한 번 생명을 보존하고, 그것을 이쪽에선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당신으로부터 제수된 선물로 받

아들인다고 하는 결과로 보였던 것입니다.」(H. 129~130)

「당신이 절 한 번도 구타한 적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고향을 지르며 얼굴이 새빨게져서 허리띠를 풀어 그것을 의자등에 걸어두는 것은 제겐 몹시도 무서웠던 것 같았습니다. 마치 교수형이라도 집행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실제로 목이 졸리면 그대로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사 끝장입니다. 그럼에도 사형이 처해지기까지의 만반의 준비가 보여지고 목을 베는 올가미가 눈앞에 드리워지고나서 비로소 은사를 받는다고 해서는 평생토록 그 일로 고통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그런 일이 거듭 중복되어 제가 의당 태형을 당해야 할 경우를 당신의 자비에 의해 모면되었다고 하는 말을 분명히 듣게 되어서는 새삼 죄의식이 커질 따름입니다. 어떠한 면에서건 저는 당신에게 빚을지고 있는 셈입니다.」(H. 133~134)

이와같이 父子間의 關係를 主題로 하고있는 이 便紙의 거의 三分의 一이 특히 幼年時節의 狀況을 엿보게 하고 있다. 여기에 묘사되고 있는 아버지 Hermann의 像은 본래 第二次 世界大戰以前의 〈父系社會〉에 있어 洋의 東西를 막론하고 一家의 중심에 君臨하여 제각기 個性의인 體臭를 풍겼던 아버지 중의 한 사람에 불과한 것이다. 허나 子息은 뭔가 그 이상의 것을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나이 36才나 되어서 왜 이제 와서 그가 아버지의 포악성을 폭로하지 않으면 안되었을까? 여기에는 그 나름의 뭔가 숨겨진 意圖가 있었음에 틀림 없을 것이다.

2-2. 絶對者로서의 父親像

上述한 바 이것들은 全體中の 아주 日常的인 情景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이들을 연결해 보면 하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림이 되는 것이다. 이를 要約해 보면,

〈모든 事物의 尺度인 아버지는 별로 모습을 나타내지 아니하여 그만큼 더욱 심각한, 익숙해져서 예사로워지지 않는 영향을 子息에게 부여하고, 子息이 범한 罪와는 合當하지 않는 法外的인 罰을 내려, 마침내는 이유도 없이 罰을 주기 때문에 子息은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아무 쓸모없는 인간임이 밝혀지고, 따라서 아버지에게 길이 막혀도 그것은 아버지의 善意여서 뭐라 말할 수도 없고, 이 善意가 실제론 子息에게 언제나 심한 굴욕감을 주는 口實밖에 못하지만, 그럼에도 아버지가 잘못된 것이 아니되고, 일컬어 아버지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아도 아버지가 옳은데는 변함이 없으며, 만일 아버지가 아무말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의견은 잘못된 것이 되며, 더우기 아버지의 正當性의 근거는 아버지의 思想이 아니고 아버지가 아버지라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그렇듯 아버지는 子息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子息의 幻滅은 처음부터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며, 일컬어 이따금 아버지가 子息과 같은 意見이 되더라도 子息은 어디까지나 아버지와는 反對의 옳지 않은 인간이 되는 것이다.〉

확실히 主題는 어디까지나 아버지의 專橫이다. 그러나 이처럼 극단적으로 肥大化되어서는 단순한 誇張이라기 보다는 現實的인 아버지의 像을 훨씬 먼 곳으로 끌어내어 質的인 變化를 분명하게 나타

내고 있음이 밝혀지는 것이다. 물론 現實의 아버지로부터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어딘지 父의인 存在임에는 변함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본질적으로 인간의 아버지로서의 限界를 超越한 存在이며, 그 때문에 子息과의 對比에 있어 比較를 초월한 절대적인 性格을 지닌 存在인 것이다.

人間の 아버지로서의 限界를 초월한 絶對的인 아버지로서의 觀念은 Kafka에 있어선 유대민족의 아버지인 神 Jahve라는 強烈한 實在을 내용으로 하는 絶對者以外엔 있을 수 없다. 여기서 그 아버지에 대한 子息은 인간의 象徴으로서의 유대인이라는 것이 된다. 결국 Hermann과 Franz와의 父子關係의 궁극적인 主題는 실은 Jahve(아니던 絶對者)와 유대인(아니던 人間)과의 관계인 것이다. 단지 Kafka에 있어서의 특징적인 것은 現實의 日常的인 父子關係가 그 本質을 抽象概念化하여 論理的으로 洗練시키면 超越者는 인간과의 관계가 된다든지, 유대교의 테두리안에 집어 넣으면 Jahve와 유대인과의 관계가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形而上學的 領域이 직접적으로 形而下學的인 영역속에 包含되어, 마침내는 形而上學과 形而下學的 區別도 없어지고 特殊具體的인 父子關係가 있는 그대로 超越的인 實在과 人間과의 관계이기도 하다는 것이 된다. 여기에 Kafka 思想의 보다 根源的인 그의 사물에 대한 感情과 思考의 특징이 있는 것이다.

前述한 Kafka 文章의 순간적인 相互變容의 比喩도 이 一面을 나타내고 있다. 그의 抽象概念의 論理的 操作이 어려웠다고 하는 말 버릇은 옳바르지 않은 것 같다. 그는 具象性을 실마리로 思考하는 思想家이다. 그에게는 抽象概念도 지극히 具象的인 이미지로 느껴졌던 부분이 있다. 이 絶對者로서 아버지인 神과 無와 같은 子息인 人間과의 관계에 있어서 子息은 스스로 아무런 功績도 없는데도 다만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는 恩惠를 감사하게 받아들여 마침내 살아가는 資格을 손에 넣는다고 하는 神學 내지는 人間學은 舊約과 新約 및 기독교에 공통되는 基本思想이지만, 이 體系는 원래 慈悲心 많은 神이 때로 은총 대신에 사리에 맞지 않는 罰을 내릴 때 붕괴의 위기에 빠지는 것이다. 그 劇的인 경우는 Martin Luther를 언급한 노여움의 神과 사랑의 神과의 分裂이라는 信仰의 위기이다. Luther는 福音이 인간을 斷罪하는 노여움의 神의 告知라고 하는 결론에 다다를 수 밖에 없었던 당시의 神學에 絶望하여 거의 人格解體의 위기에까지 쫓기지만 神은 인간의 불완전한 노여움에 의해 비로소 사랑을 행하는 神이라고 하는 逆說에 도달한다. Luther는 神이 여하히 不合理的인 태도를 보일지라도 그것은 단지 인간의 눈에 그렇게 비칠 뿐이며 그 일로 神義가 잃어지는 것은 아니다. 아버지인 神은 결국 子息인 인간을 사랑하지 않을 까닭이 없기 때문에 그 독특한 사랑의 모습을 探求하면 된다고 보는 것이며, 결국은 實在하는 아버지인 神에의 절대적 신앙에 의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Kafka에 있어선 絶對者는 絶對者인 것이며 獨裁者로서 猛威를 떨치는 인간의 不完全性을 규탄한다. 인간에게 이 不完全性을 克服하여 自由가 된다는 희망은 없어지고 단지 절망만이 있을 뿐이다. 그리하여 이 절망을 나름대로 희망으로 逆轉시킬 수도 인간에게 불가능하다. 왜냐 하면 絶對者가 存在하고 君臨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Kafka와 實存主義者와의 구별이 가능한 결정적인 相違點이 있는 것이다. Kafka에 있어서의 人生은 그대로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絶對者의 恩寵에 의한 선물로서 그 은총은 그에게 감사의 정을 불러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주어지는 것도 아

니며, 굴욕을 느끼게 하지 않고선 안되는 것으로서 주어지는 것이었다. 그것은 일부러 死刑을 宣告해 두고 마지막 순간에 恩赦를 내린다는 그런 식이었다. 자신은 살 가치가 없는 인간이라는 絶望을 깊게하기 위해서 비로소 주어지는 人生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독특한 思想이 여하히 形成되었는가? Hermann 과의 父子關係가 그 原狀況이 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해졌다. 이 최초의 狀況中에 Kafka 思想의 核心을 이루는 原體驗이 태동하고, 그것이 成長과 함께 온갖 經驗을 통해 自己認識을 깊게하며, 따라서 최종적 思想體系로서 自己形成을 하었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인간의 原體驗은 植物의 씨앗처럼 내용면에서도 결정적인 것이었는지, 原體驗은 行動形式의 기본적 배두리여서 내용을 성하게 하는 것은 물정에 따라 以後의 自覺的 生活方式은 아닐런지? 더우기 그러한 숙명적인 조우도 原體驗이 되풀이 되고 있을 따름이라 설명되더라도 反論은 가능하다. 原體驗은 意識의 薄明期에 수동적으로 行하여졌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할 수단은 없는 것이다. 허나 인간의 生の 不可思議는 그러한 기계론적 결정론으로 포착할 수 없는 것이다. 자기 생애를 좋은 나쁜 결정할 어떤 경험을 合理化하기 위하여 薄明期의 朦朧한 記憶의 斷片이 그 경험과의 관련으로 최초의 記憶으로 形成되는 것이다.

인간을 모욕하는 모습 이외엔 은총을 내리지 않는 아버지인 神이라는 神觀은 Kafka가 얼마 만큼 깊이 유태思想에 몰두해 있었는가 하는 분명한 증거이지만, 그가 유태인이라는 것과 관련하여 당시 그가 관계하던 모든 問題, 즉 西유럽과 東유럽의 유태인의 對立, 유태인 습격사건, 시온이즘, 팔레스티나 移住, Talmud 등과 깊숙히 관계하고 있었으며,⁶⁾ 이 관심은 개인적인 幼兒體驗만이 動機가 되고 있다고 하기에는 너무도 방대한 것이다. 아니 그의 思想形式에 부여된 힘은 비단 유태사상만은 아니다. 특히 그는 獨逸文學의 傳統에서 배우고 있지만, 그 뿐만도 아니며 유럽文化의 恩惠를 입고 있는 것이다. 앞서 引用한 부분에서 그 一例를 들어보면,

〈목을 조르기 위한 만반의 준비가 진행되고 목을 머는 올가미가 눈앞에 드리워졌을 때, 그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神의 恩赦를 듣는다〉고 하는 情景은 그가 일생동안 존경해 마지않았던 Dostojewski의 「체트라세프스키 事件」에 있어서의 銃殺刑이 단지 絞首刑으로 바뀌어졌을 뿐이다. 「白痴」에서의 이 무서운 이야기는 젊은 Dostojewski로 하여금 〈惡〉에 눈뜨게 한 사건으로 유명하지만 그에게 親近感을 갖고 있는 Kafka는 이 이야기에 感動되어 戰慄했음에 틀림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體驗이 Kafka에게 자신의 幼兒體驗을 想起시켜, 거기서 자신의 私的體驗을 Dostojewski에 의한 普遍的 體驗에 의해서 意味지우고 文學的으로 形象化하였다 할 것이다. 그는 Dostojewski 뿐만 아니라, Goethe, Kleist, Stifter, 그리고 Swift나 Flaubert 등의 文學上의 大師들에게 깊은 영향을 받고 있으나 이것은 Kafka文學의 특이한 表層 밑바닥에 潛藏한 古典性이 감추어져 있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가 될 것이다.

2-3. 現實的 父子關係

그런데 아버지 Hermann은 과연 非難을 받아야만 할 아버지였을까? 틀림없이 子息에겐 受難이

6) 拙稿：前出 S. 131 以下 參照.

있던 것은 사실이다. 훨씬 이전의 그의 『日記』에도 이러한 表現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버지가 當世 사람들의, 그 중에서도 자기 아들의 행복스런 상황을 부단히 빈정대면서 자신의 젊었을 무렵 줄곧 견디지 않으면 안되었던 온갖 고통에 관해 이야기할 때면 그것을 듣는 것이 마음에 거슬린다. 아버지가 몇년이고 지독한 저 冬服때문에 발의 상처를 드러내놓고 있었으며, 잘도 굶주렸던 일이며, 또 일찌기 열살때 겨울에도 이른 아침부터 손수레를 끌고 마을에서 마을로 돌아다니지 않으면 안되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정하지 않지만——그런데도 아버지는, 이것은 그가 이해하려고 하지 않은 일이지만, 내가 이들 정당한 사실과 자신이 이들 모든 것에 감내할 수 없었다고 하는 그 이상으로 정당한 사실들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당연한 推論마저도 허용받지 못하는 거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보다 행복해서 아버지는 다리의 상처때문에 자만할 자격이 있는 거지만, 그렇드라도 아버지는 처음부터 <저녀석은 당시의 나의 노고를 평가할 수는 없으며, 무엇보다도 똑같은 노고를 격지 않았기 때문에 저녀석은 결국 어디까지나 내게 감사하지 않으면 안되는 거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추론이다. 만일 아버지가 부단이 자신의 젊었을 때의 일이나 자신의 양친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난 얼마나 기꺼이 귀담아 들었을까. 허나 이들 모두를 호언장담이나 웅변조로 듣게 되는 것은 몹씨도 괴롭다.」(T.157~158, 1911. 12. 26)

「옛부터 당신은 절 꾸짖어(저 혼자일 때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럴 때도 있었읍니다만, 후자의 경우 그것이 저의 체면을 손상시키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았읍니다. 자기 자식들의 일이면 언제나 노골적이었습니다.) 제가 당신의 일 덕분에 밋하나 부족한 것 없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또 풍족하게 지내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 그 당시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으며, 그것은 저의 뇌리에 뚜렷이 새겨져 있음에 틀림 없읍니다……이런 이야기도 다른 상황하에 들려주셨더라면 훌륭한 教材가 되었을 것이며, 또 아버지가 경험하신 것과 같은 노고와 불편을 감내하기 위한 격려도 되고 활력소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그런 것은 바라지도 않았읍니다. 저희들의 경우 바로 당신의 노고의 결과로 다른 상황이 되었읍니다만, 당신이 사서 하신 것과 같은 방법으로 거기서 발돋움질하기 위한 기회가 저희에게 없었습니다. 이런 기회는 폭력과 혁명에 의하지 않고는 만들어 낼 수 없었을테지요. 그래서 결국 집을 뛰쳐나올 수 밖에 없었겠지요(가령 저희에게 그렇게 할 결심과 힘이 있고 어머니가 여기에 대해 어머니로서의 다른 대책을 강구할 수 없었다고 했을 때의 얘깁니다). 그러나 당신은 전혀 그런 일은 바라고 있지도 않았읍니다. 이처럼 당신은 한편으로 예를 들거나 이야기를 한다던지 수치를 느끼게 하여 저를 대항토록 유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단호히 금하셨던 겁니다.」(H. 134~135)

「두 말할 나위도 없이 저가 이러한 인간이 된 것은 당신의 감화에 의해서라고만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과장이라는 것이겠지요(그런데 제겐 이렇듯 과장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설사 제가 당신의 영향을 전혀 받지않고 성장했다 하더라도 당신의 마음에 드는 인간으로는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법도 합니다. 아무래도 전 마음약하고 내성적이며 우

물쭈물하는, 게다가 침착성없는 인간이 되었을 겁니다……당신이 친구라면, 상사라면, 숙부라면, 조부라면, 야니 일컬어(벌써부터 벌벌떨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부라 하더라도 전 행복했을 겁니다. 다만 아버지로서는 당신은 제게 너무 강하였으니까요.」(H.120)

子息의 말처럼 실제로 被害를 입어온 그로서는 아버지 만큼 성공하진 못했더라도 좋으니 제발 부드럽고 순한 이해심 많은 아버지였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父子關係란 운명이어서 아버지가 子息을 선택할 수 없듯이 子息 또한 아버지를 고를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사실을 Kafka가 몰랐다는 것은 아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自身の 自己確認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自身の 正體를 파악하기 위하여 아버지와 對決할 필요를 느꼈던 것이다.

Emrich의 말처럼 『城』에서의 主人公 K.가 미처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순간/unbewachter Augenblick>⁷⁾인 어중간한 상태, 즉 <中間狀態/Zwischenzustand>⁸⁾에서 끝내 城안에 들어가지 못하듯, 어린 Franz가 意識의 <中間狀態>⁹⁾에서 깨어나 世界에의 길을 찾고 있을 때 그의 앞에 世界에로 통하는 入口로서 숙명적으로 버티고 있는 巨大한 門이 아버지 Hermann이었기 때문이다. 이 <문>¹⁰⁾은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들어갈 수만 있다면, 世界에로 통하는 확실한 展望을 획득할 수 있는 門인 것이다. 그는 아버지 Hermann과의 關係에서 결국은 作家 Kafka가 되는 것이다.

3. 父子間의 對決

3-1. 父女間의 對立

Franz가 非日常的인 思索에 耽溺할 수 있었던 것은 누이 Ottla의 도움이 컸던 것이다. 그녀는 家族中에서 가장 그를 이해하였으며 그 또한 그렇게 하도록 애썼던 것이다. 게다가 두 男孀의 보다 친밀한 관계는 外部에서의 作用도 있어서였다. 그것은 1917년 Felice와 최종적으로 헤어지기 위하여 Prag에 와 있던 그가 12월 30일자 Ottla에게 보낸 便紙에 보다 상세히 나타나 있다.¹¹⁾

7) W. Emrich: Franz Kafka, Athenäum Verlag 1970, S. 70, 211, 322, 403 및 B.222의 <in einem unbewachten Augenblick (Er)> 參照.

8) Emrich: 上掲書의 <睡眠과 覺醒의 中間狀態/Zwischenzustand von Schlaf und Wachen>을 말하는 것이며, 이것은 <각성과 수면의 夢想狀態/Traumzustand zwischen Wachen und Schlafen>(Emrich 400)으로 풀이되고, <수면과 각성의 薄明狀態/Dämmerzustand zwischen Schlafen und Wachen>(Emrich 404)로도 풀이되며, <生과 死의 境界, 此岸과 彼岸의 境界/die Grenzen zwischen Leben und Tod, Diesseits und Jenseits>(Emrich 20)로도 풀이된다.

9) 이것 역시 『訴訟』의 Josef K.가 잠에서 깨어나자 마자 非夢似夢間에 不意에 逮捕當하는 場面(P. 20)이나, 『變身』의 Gregor Samsa가 잠에서 깨어나자 자신이 巨大한 毒虫으로 變身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E. 57)나, 死者도 生者도 아닌 <사냥꾼 Gracchus>가 이승과 저승 사이를 徘徊(B. 77)하듯, 대부분의 Kafka의 作品은 이러한 狀態로 始終하고 있다, 심지어 Odradek-Fabel인 『家長의 配慮/Die Sorge des Hausvaters』에서는 「열한명의 아들/Elf Söhne」에서와 마찬가지로 그의 <아버지>에 대한 觀念의 分析이 問題가 되고 있다(拙稿:濟州大學論文集 第9輯, 1977. S. 207~225 참조).

10) 이 門은 吡噉「律法の 門앞에서/Vor dem Gesetz」에서의 修道僧이 暗示하고 있는 門과 같은 것이다. 「만약 그 사람이 자신이 조우하는 장애를 장애라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가 들어가야 할 門, 다시 말해서 그의 본래의 존재, 그 자신의 진실에 통하는 門에 들어가기에 용이하게 되었음에 틀림없다.」(P. 155f.)

11) K. Wagenbach: Franz Kafka, Rowohlts Monographien Hg. von K. Kusenberg, 1968, S. 110~113 참조.

「다른 사람에 비하면 약간은 순수하게 자란 내 눈에 이들 대화의 결과로서 지금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너와 내가 양친을 <버리고>, <은혜도 모르고>, <돌았다>고 하는데는 너든 나든 이러한 열러나 비난에 대해 완전하달 정도로 정당한 입장에 있다는 점이다. 이유인즉 우리가 양친을 버리지도 않았거니와 배은망덕한 적도 없으며 정신이 나간 것도 아니며, 단지 심분 착실한 의도로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일이나 아직 아무도(예컨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기 위해) 우릴 위해서라고 생각해 줄 것 같지도 않은 일을 했을 정도니까. 단지 아버지에게 비난할 만한 실제의 권리만은 있을테지. 결국 우리가 뵈이든 필요로 하는 것을(아버지의 저축에 의한 전지, 빌린 돈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너무 쉽게 손에 넣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말이야. 아버지가 알고 있는 시험방법으로는 굶주림이나 돈걱정, 심중팔구 병, 그 밖엔 없지만 우리에게 여지없는 강력한 시련인 앞의 돌을 아직 우리가 급제하지 못하고 있음을 아버지는 알고 있으며, 그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로운 발언을 금하게 하는 권리를 끌어내고 있는 형편이지. 여기엔 진실적인 것이 있으며, 그래서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선이라는 것도 된다니까. 때문에 우리가 굶주림이나 돈걱정을 몰아내려 할 때면, 아버지의 원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한, 우리 태도엔 아버지에 대해 갈렷다고 하는 생각이 남아 있게 되며, 말하자면 견보기론 그렇지 않더라도 아버지에게 여하간 따르지 않으면 안되는 거란 말이야. 이래선 아버지는 뭔가 단순한 아버지 이상의 것, 뭔가 단순한 사랑을 하지않는 아버지 이상의 것으로서 말이지.」¹²⁾

이 마지막 대목은 앞서 다룬 Franz의 父親像이 너무도 간결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子息들의 자유분방한 주장을 제멋대로라고 단정하여 자신의 체험에서 얻은 그 生活方式의 挫折을 우려하는 아버지의 태도만큼 일반적인 것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평범한 아버지도 Franz의 손에 걸려들면 絕對的 權威를 걸머진 獨裁的 超越者로 君臨 變容하는 것이다.

위의 편지에서 당시 그와 Otta와의 關係¹³⁾가 아버지에게 對抗하기 위한 同盟이었다는 점이 분명해지는데, 이 동맹은 갑작스레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 이 시작은 Ottla의 反抗에서 由來하고 있는 것이다. 『아버지에의 便紙』에 따르면 Ottla는 어른스런 언니들과는 달리 自己主張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딸로서 아버지의 命令에도 예사로히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아버지도 이 反抗의인 딸에게 손을 들은 것 같으며, <저것하곤 도무지 얘기가 되지 않아, 무례하게 대어든다니까>(H.140)라고 투덜대고 있다. 딸은 家業인 장사를 못마땅히 여겨 家出하여 農場經營에 뛰어들었는가 하면, 책코인이며 기독교도인 사내와 非公式으로 결혼하여 아버지의 신경을 건드리고 있다. 아버지인 격노한 나머지 자기 딸을 Zürau의 미친년이라고까지 불렀던 것이다.

이 일련의 反抗에 오빠가 한술 더 떠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버지도 잘 알고 있었다. 오빠는 농장 경영을 공부하기 위해 농업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도왔던 것이다. 확실히 오빠는 이 막내누이가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그는 이 사실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이다.

12) ebd. S. 113.

13) Ottla와의 관계는 그의 『日記』에 나타나 있는 Ottla에의 印象이 대변하고 있다. 「순수하고 정직하며 성실하고 사리에 맞으며, 겸양과 긍지, 민감과 억제, 헌신과 자주, 수치와 용기, 이 모두가 어긋나지 않고 균형이 잡혀 있다.」(T. 375, 1916. 10. 18)

「그 애는 당신의 의견에 의하면 고의적으로 당신을 괴롭히고 부아를 들군다고 당신 자신이 제게 털어놓으신 적이 있으시지요. 당신이 그 애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시게 되면 그 애는 만족하여 기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악마인 셈입니다……그 애에게 유달리 고심하신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얽히고 설킨 사정을 전적으로 모른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여기엔 최상의 Kafka적 무기로 갖추어진 일종의 Löwy식의 어떤 것이 있었던 겁니다. 당신과 저 사이에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싸움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전 갑작스레 꿀탕을 먹고 나중엔 도망을 치거나, 몹씨 불쾌해 지거나, 비탄에 빠지거나, 내심에서의 도전밖엔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당신과 Ottla는 언제나 전투상태에 있었으며, 언제나 활기에 넘치고 씩씩해 보였습니다. 그것은 장렬하다 못해 압담한 광경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당신들은 서로가 몹씨 가까웠습니다. 왜냐 하면 오늘날까지도 우리들 뱃중에서 Ottla가 다분히 당신과 어머니 사이의 결혼생활의, 따라서 두 사람 사이에 당시 맺어진 모든 힘의 가장 순수한 표출이기 때문입니다. 당신과 Ottla로부터 부녀간의 화합의 행복을 맛아간 것이 뿔이었는데 전 알 수 없습니다만 저의 경우와 비슷한 경과를 더듬어 왔다고 믿어도 괜찮으리라 생각됩니다. 당신 쪽은 당신의 본질인 독재성, 그 애쪽에선 Löwy 류의 반항, 민감, 정의감, 비침착성이 되는 겁니다만, 이들 모두가 Kafka적 힘의 의식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저의 영향도 있을 겁니다만, 그러나 제가 자발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고 단지 제가 거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만으로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H.140)

Ottla의 反抗에의 加擔은 요컨대 Kafka 자신이 표면적으로 反抗할 수 없었던 아쉬움에서의 教唆라고 볼 수 있다. Ottla의 反抗은 분명히 그녀 자신의 自由를 쟁취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라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그의 도움은 아버지가 딸의 반항에서 받게되는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결과가 되었던 것이다. 때문에 아버지는 그에게 빈정대는 듯한 말투로 그녀의 험담을 했던 것이다. 비단 아버지는 Ottla의 일만으로 그에게 화를 내었던 것은 아니었다. Felice와의 約婚을 최종적으로 파기해 버린 것도 아버지에게 불쾌하기 짝이 없는 사건이었던 것이다.

3-2. 父子間의 葛藤

前述했던 바 Kafka의 아버지에 대한 對立感情은 예사로운 것이 아니었다. 1916년 10월 18일자 『日記』의 F.B.에 보낸 便紙抄에서 그는 自己感情의 격렬한 Dilemma적 상황을 잘 나타내고 있다.

「말하자면 난 양친의 자식이며, 양친 그리고 누이들과는 피의 연계를 맺고 있다. 이것은 일상 생활에선 느낄 수 없으나——이것은 내가 자신의 특수한 목적에 잘못 발을 들여 놓은 어쩔 수 없는 결과지만——그러나 요컨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이상으로 난 거기에 경의를 보내고 있다.」(T.375)

「때로는 나는 이 피의 연계를 증오의 대상으로 삼을 때가 있다. 양친의 침대, 쓰고난 침구, 차곡차곡 개어놓은 잠옷, 이런 것들을 보게되었을 땐 구역질이 나고 속이 뒤틀려 견딜 수가 없다.」(T.375)

되풀이 되는 表現이긴 하나 Kafka의 文章은 視角에 따라 완전히 다른 透視圖와 같아서 어느새 表面에 浮刻되어 있던 意味가 곧 여태까지 보이지 않던 또 다른 正反對의 意味로 交替되기 일수이다. 그런가 하면 잇달아 그 다음 순간에 또 다시 逆轉하는 것이다. 두 가지 의미가 서로 分離되어 단독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의미가 그대로 또 다른 하나의 의미로 變容하는 것이다.

「당신의 입장에서 보면 사정은 언제나 지극히 간단했습니다. 적어도 당신이 절 상대로, 그리고 누구든 닮는대로 붙들고 이 문제를 의론할 때면 항상 그랬으니까요. 당신의 생각은 대체로 이런 것 같습니다——당신은 평생토록 일해왔다. 자식들을 위해, 그 중에서도 절 위해선 뭣이든 희생했다. 그 덕택으로 저는 <금이야 옥이야> 키워졌다. 어떤 일이든 제맘대로 공부할 수도 있었다. 세끼 식사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 어려움이 없었다. 그 댓가로 당신은 감사를 요구하지 않았다. 당신은 <자식들의 호도>라는 말을 알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어떤 호의같은 것, 동감의 표시는 체험하지 못한 것 같다. 그런데도 저는 전부터 당신을 피하여 제 방으로, 책의 세계로, 정신나간 친구들에게로, 열토당토 않는 공상의 나라에도 도망쳐 버린다. 전 당신과 터놓고 얘기한 적이 없다……그 밖에도 부자간의 감정을 가져본 적도 없다. 사업이나 그 밖의 다른 당신의 일에는 아랑곳하지 않았다……당신을 위해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주제에……친구의 일이라면 뭣이든 달겨든다.」(H. 119)

「세계에 대한 당신의 판단을 요약하면, 당신이 저의 부당한 점이나 비뚤어진 점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이번의 저의 결혼문제에 관해서만은 예외인지 모르지만) 냉정과 상극, 망은을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당신의 말투로 미루어 보면, 이것이 모두가 내가 나쁘기 때문이다. 내가 조금만 조종을 잘하면 사태는 이렇진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을 따름입니다. 당신쪽은 어떤가 하면 세계 지나치게 잘 대해 주었다는 점을 제외하곤 조금도 책임이 없다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당신의 틀에 박힌 말투는 우리들의 서먹서먹한 관계에 당신이 전혀 책임이 없다는 것을 제가 믿을 경우케 한해서만 옳다고 생각됩니다.」(H. 119)

「재미있게도 제가 무엇을 말할려고 하는지를 당신도 예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들면 일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언제나 난 널 사랑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아버지들이 취하는 것과 같은 태도로 너에게 대할 순 없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처럼 시치미를 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버지, 전 전반적으로 세계에 대한 당신의 호의를 의심한 적은 없었습니다만, 이 말씀만은 틀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시치미를 댄 수가 없다는 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단지 이 이유만으로 다른 아버지들이 시치미를 댄다고 주장하는 것은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는 독선에 불과하든가, 그렇지 않으면——저의 생각으론 틀림없이 그렇다고 여깁니다만——우리들 사이가 좋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또 당신의 책임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신에게도 그 원인의 일부는 있다고 하는, 은폐된 표현인 것입니다. 당신이 진실로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면 우리들의 의견은 일치하는 것입니다.」(H. 120)

幼年時節부터 子息의 아버지에 대한 反感은 마음속 깊이 은연중에 싹터왔으며, 끝내 子息이 문제

로 삼았던 것은 아버지의 對立的인 性質이 항시 자신에게 幻滅을 안겨 주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아버지의 이 對立感情은 子息의 正·不當性의 문제가 아니고 그 자신의 習慣的인 生活方式의 規範의 문제였던 것이다. 子息이 말하고 있는 아버지의 타성이란,

「제가 어떤 사람에게 사소한 관심을 갖은 것만으로——저의 성격상 그런 일은 자주 있는 것은 아닙니다——당신은 기다리기라도 한듯 저의 기분을 생각해 주거나 판단도 존중해 주지 않고 혐구와 중상과 독설로 간섭하시는 겁니다……제게 호의를 보이는 사람에게겐 의례 당신은 자동적으로 개나 이(蚤)의 속담을 끌어대었습니다. 제가 저 배우의 일을 지금도 특별히 기억하고 있는 것은 당신이 그 당시 그에 대해 말씀하신 메모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전혀 알지도 못한다) 내 친구에 대해 그런 식으로 말한다. 이유 같은게 있을 리 없다. 그가 내 친구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내게 효행이나 감사의 마음씨가 모자란다고 투덜땄 땄 의례 이 말을 끌어낸다.> 언제까지나 제게 불가사의하게 생각되었던 것은 당신의 말이나 판단에 의해 저에게 얼마만큼 고통과 치욕을 안겨주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당신은 전혀 무관심했다는 사실입니다.」(H. 125~126)

「당신의 교육이란 온통 그런 식이었습니다. 당신에게 일종의 교육적 재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에게라면 당신의 교육도 틀림없이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류라면 당신의 말투에 사연이 있음을 알아채지도 못하고, 그 밖의 일엔 마음을 쓰지도 않고 말씀한 그대로를 고스란히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의 저에게 당신의 말씀은 모두가 하늘의 명령 그것이었습니다. 결코 전 그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판단하는, 그 중에서도 당신 자신을 판단하는 가장 중대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면 당신은 완전한 낙제였습니다.」(H. 126)

子息에게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절대적명의 決定力을 지닌 아버지가 자신은 지키지 않는 戒律을 子息으로 하여금 이를 지키도록 강요한 것이며, 또한 자신의 立場이나 體面만을 내세웠을 뿐 子息의 感情을 전혀 감안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子息에게 자신의 世界와 아버지의 世界가 완전히 別個의 것으로 비치게 된다.

「그 결과로 제게는 세계가 세 부분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제一의 세계에는 저라고 하는 노예가 살고 있습니다. 저 혼자만을 위해 고안된 법률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러면서도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완전히 이것이 지켜진 실례는 없습니다. 제二의 세계는 저의 세계에서 무한히 떨어진 먼 곳에 있어, 거기에는 당신이 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정무나 정령의 포고, 그 위반에 대한 죄증으로 바쁘십니다. 최후로 제三의 세계입니다만 여기서 그 밖의 사람들이 명령이나 복종에 시달리지 않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언제까지나 굴욕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명령에 순종했어도 그것은 굴욕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 명령이 저만을 상대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반대를 했어도 그것 역시 굴욕이었습니다. 이유인즉 제가 당신에게 반항할 도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예컨대 당신만큼 체력이나 식욕도 재간도 갖추

거 못한 이상 복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아주 당연한 일인 것처럼 복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야말로 분명 최대의 꿀욕이었습니다. 어릴 때의 일이라 분별력을 갖고 이렇듯 생각을 집약해 두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뿐입니다.」(H.127)

「그러나 반대 발언같은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찬성하지 않는 일이나 자신의 발의가 아닌 것에는 근본적으로 조용히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콧대센 기질이 그것을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근년에 와서 당신은 이것을 심장신경증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당신이 본질적으로 지금과 달랐다고는 짐작이 가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심장신경증 운운하는 것은 그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상대편은 항변의 숨통이 끊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의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비난은 아닙니다. 사실의 확인에 불과합니다.」(H.127~123)

「전 말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웅변가 같은 것은 되고 싶지도 않은 겁니다만 인간이 일상 사용하는 정도의 언어라면 저도 구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당신은 처음부터 제게 말을 금지시켰습니다. <뉘 앞에서 감히 대꾸냐> 하는 위협과 함께 치켜드는 손은 옛부터 늘 제게 따라 다니는 것이었습니다……결국 전 병어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항에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다음은 당신앞에 서기만 해도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저의 유일한 교육자였기 때문에 이런 일은 저의 생활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쳤던 겁니다.」(H.129)

「제가 이러한 인간이 된 것은 (생명의 근거나 작용은 물론 별개의 겁니다만) 당신의 훈육과 저의 복종의 성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과가 당신에게 고통스럽게 받아들여진다는 것, 아니 그보다 당신이 이것을 자신의 훈육성과라 인정하기를 무의식중 거부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당신이라는 손과 저라고 하는 재료가 얼마만큼 무연했는가 하는 더할 수 없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H.129)

「적어도 제게 대해 겨냥이 빗나가지 않은 웅변적인 훈육수단중에 특히 효과를 발휘했던 것은 험구와 위협과 야유와 기분 나쁜 웃음과——묘하게도 자탄이었습니다.」(H.129)

「당신이 특히 신뢰를 두고 있는 것은 야유에 의한 교육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게 대한 당신의 탁월성에 가장 적중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경고를 할 때도 당신의 경우엔 의례 이런 식이었습니다. <너에게 그런 일이 안 된단 말기냐, 아무래도 네 힘엔 겨운것 같아, 게다가 물론 시간도 모자랄테고.>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런 말투속에는 매번 기분나쁜 웃음과 눈길이 따르는 것이었습니다……형식적으론 어머니께 말하는 체하면서 실제로는 곁에 있는 저에게 들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예를 들면 <물론 그런 일을 애한테 해 달랠 수야 없잖아>라는 식의 그런 것 말입니다.」(H.130)

「때문에 저에겐 당신이 보여주는 눈물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배후에 어떤 의도를 감추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당신이 자식들의 일로 몹시 괴로워하셨다

는 걸 알게 된 것은 그로부터 훨씬 뒤의 일로, 그러나 그 당시는 사정이 다른 어린애 같은 유치한, 노골적이고 무분별한, 어떤 도움이든 싫어하지 않는 기분에 빠졌을지도 모르는 웃음도 제 입장에서 보면 너무도 노골적인 교육수단이거나 아니면 짓누르기 위한 수단으로 밖엔 생각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자체라고만 하면 별로 강력한 수단은 아니었습니다만 유해한 부작용이 뒤따랐던 것입니다. 자식은 버릇처럼 되어서 처음부터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을 그다지 신중하지 않게 받아들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H. 131~132)

이렇듯 두 사람의氣質의 差異는 또한 對照를 이룬다. 아버지는 外向的이고 多血質的인 主役의 人間으로 活動家며, 事實만을 믿는 現實主義者다. 반대로 子息은 內向的이고 신경질적인 端役의 人間으로 지식인이며, 事物의 背後에 숨겨져 있는 온갖 象徴만을 探求하는 藝術家다. Franz 에겐 言語는 手段아닌 目的이며 作品이야 어떻게 되는 作家가 關心할 바 아니며, 그것은 作家를 끌어들이는 作品의 創造와 떼어 놓을 수 없는 目的인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은 父子間의 不斷한 葛藤이 그로 하여금 家庭環境과 보다 持續的이고 깊은 因果關係를 맺게 하고 있으며, 나아가 父子間의 人間關係가 보다 彼岸의인 關係에로 對應하기에 이르는 Vater-Komplex 를 유발했던 것이다.

3-3. 子息과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와의 函數關係

「어머니가 제게 대해 무한히 좋은 분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모두가 당신과의 연계 속에서였습니다. 그러나 결코 고마운 연계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알게 모르게 사냥시의 물잇꾼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좀 생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만 당신의 교육이 반항과 혐오와 증오마저 낳게 함으로써 저로 하여금 혼자 힘으로 일어설 수 있게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 경우에도 어머니는 착한 마음씨로 사리에 맞게 이야기하고 (유년시절의 혼돈중에선 어머니야말로 이성의 모델이었습니다.) 간청한다든지 해서 일을 바르게 마무리지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다시금 당신의 메두리안으로 되쫓겨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그렇게 되면 저는 다시 당신 앞에서 엉킴한 인간이 되고 사기꾼이 되고 죄의 자각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전 자신의 허무감 때문에 당연히 자신의 권리로 생각되는 것에 도달하는 데에도 셋길밖엔 통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H. 133)

「제가 당신에게서 도망치려 하면 가족들에게서도, 어머니에게서 조차도 도망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어머니결이면 언제라도 피난 장소가 발견되긴 했지만, 그것도 어김없이 당신과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을 너무 사랑하고 당신에게 너무 헌신적이어서 자식과의 싸움이 되면 독립된 정신력을 오래 지속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H. 138)

子息은 나름대로 어머니를 이해하려 한다. 그것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夫唱婦隨의 關係때문만은 아니다. 本能的으로 어머니는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든지 거역할 수도 없는 마음씨 착하고 유순한 Löwy 家의 東洋的인 氣質의 소유자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버지와 子息과의 틈바구니에 끼어 이룰 수도 저릴 수도 없이 몰래 눈짓으로 자식쪽을 달래는 것이다. 그것은 자식이 어머니의 난처한 입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입장에서선 一家를 위해 苦心하고, 家業인 商業經營에는

물론, 家族들의 病마저도 심려하며 보살피는 것이 당연한 일이긴 하나, 무엇보다도 어머니가 가장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경우는 역시 父子間의, 그리고 또 父女間의 사이에 끼었을 때일 것이다. 그러한 어머니를 경우에 따라서는 아버지는 아버지의 立場에서, 子息들은 그들의 立場에서 가차없이 끌려대는 것이다.

「바로 당신은 저희들을, 저희들은 당신을 상대로 시작한 싸움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저희 어머니에게 화를 내고 있었던 겁니다. 당신이 어머니를 <아무리 당신쪽엔 죄가 없다 하더라도>, 저희들 일로 피로움을 당하셨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식들의 교육을 위해서도,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되었던 겁니다. 그 때문에 그러지 않고선 정당화할 여지도 없는 어머니에 대한 저희들의 태도가 심지어 정당한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던 겁니다. 어머니는 당신때문에 저희들로부터, 또 저희들 때문에 당신으로부터 그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뭇보다 당신쪽이 옳았을 경우는 전혀 다릅니다. 어머니가 저희들의 응석을 받아주셨기 때문이지요. 설사 이 <용서>마저 이따금의 당신의 주의/System에 대한 무언의, 그리고 무의식적인 반배 시위에 불과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물론 어머니는 저희들 모두에 대한 사랑에서 그리고 이 사랑에 대한 행복에서가 아니었다면 그와 같은 인내력을 기르시진 못했을 겁니다.」(H. 138—139)

「Ottla는 아버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녀는 혼자 제 갈 길을 찾아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나 자신, 건강과 과단성이 저보다 그녀쪽에 더 많은 것이 있으면 그만큼 당신 눈엔 저 이상으로 그녀가 사악한 배신자로 보이는 겁니다. 전 알고 있습니다. 당신쪽에서 보면 그녀는 별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녀 자신은 당신의 눈으로 자신을 볼 수도 있고 당신의 고뇌에 동참할 수도 있으며, 게다가——절망에 빠지지 않고(절망하는 것은 제쪽입니다) 가만히 슬픔을 견디어 낼 수도 있습니다. 이와 모순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신은 저희가 자주 함께 있는 걸 보시게 됩니다. 우린 소근거리기도 하고 웃음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당신은 자신의 뜬소문도 듣게 됩니다. 당신은 틀림없이 철면피한 공모자의 인상을 받으시겠지요. 가공할 만한 공모자들입니다. 당신은 옛부터 저희들의 대화나 사고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당신에게 대항하려는 의도에서 한패가 된 것은 아닙니다. 서로 흉금을 털어놓고 장난을 한다든지, 진지한 입장이 된다든지, 사랑을 쏟거나, 반항과 분노, 혐오와 심복, 죄의식을 감추지 아니하고 혼신의 힘을 다하여 저희와 당신사이에 맴돌고 있는 이 무서운 심판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사방팔방에서, 어떤 기회도 놓치지 아니하고, 때론 멀리서 때론 가까이에서 힘을 합하여 검토하려는 목적에서입니다. 이 심판에서 당신이 언제나 재판관이라 주장하시지만, 당신도 최소한 대개의 경우(여기서 저도 당연히 제가 저지를 것 같은 모든 과오를 감수하겠습니다) 무력하고 맹목적인 일개 당사자에 불과하다는 점에선 저희들과 아무 다를바가 없는 겁니다.」(H. 141)

父子間이나 父女間의 이러한 對立樣相은 결국 어머니의 介入으로 대개 그 위기를 모면하고 있다. 그러나 어머니를 빗대놓고 실은 子息더러 들어라는 투의 아버지의 간접적인 힐난은 되려 子息의 비위를 건드리는 逆効果를 야기하고 있다. 때문에 子息도 아버지에게 직접 표현할 말을 어머니를 통해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있었나요>(H. 130)하는 식의 간접적인 질문으로 탈바꿈하는 버릇 같은 것

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지 않고선 아버지로부터의 역습을 모면할 수가 없는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날벼락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이다. 이력저력 어머니는 兩者사이에 끼여 진퇴양난의窘境에 빠지는 것이다.

4. 結 語

問題는 이처럼 Kafka의 『아버지에의 便紙』속에 始終一貫되고 있는 主題인 이 父子間의 對決이 이 何히 풀이되고, 또 받아들여져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便紙〉에 描寫되고 있는 아버지 Hermann의 肖像이 어린 Franz의 印象 그것이 아니고 36才가 된 Franz의, 더우기 作家 Kafka의 손에 의한 것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결국 事實적인 것과 解釋적인 것이 쓰는 사람에게 의해 分明하게 區別되어 있지 않고 두가지 要素가 미묘하게 有機的으로 적지아니 융합되어 있다는 점이 된다. 子息은 모든 사건을 自己에게 有利한 方向으로 歪曲하려는 誘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당연하다고 한다면 당연하달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선불리 公正을 期하려는 듯한 속임수같은 正義感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고 하는 점이 이 記錄의 魅力中の 하나가 되며, 이것이 作品이 아닌 私信이었다고 하는 증거도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作家 Kafka에 의해 쓰여졌다고 하는 事實上의 意味는 결코 넘겨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이 便紙는 결국 子息 Kafka와 作家 Kafka와의 奇妙한 協力에 의해 成立된 것이다. 作家 Kafka는 自身이 作家라는 事實을 잊기라도 한 듯 子息 Kafka가 되어 自身에 대한 아버지 Hermann의 罪狀을 白日下에 폭로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불을 튀기는 듯한 격렬한 非難의 背後에는 父子間에서만 통할 수 있는 情感이 흐르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미움과 사랑, 그 어느 한 쪽이라 단정할 수 없는 不可思議한, 그러면서도 人間味 넘치는 그리움 같은 묘한 情感이다. 게다가 이러한 情感에 빠지기 위해 이것을 쓴 것은 아닐까 하는 疑惑마저도 주고 있다. 그러나 文章이 비록 激昂되긴 했어도 참 意識은 잃지 않은 것이다. 결국 이 便紙의 背後의 闇中에는 作家 Kafka의 配慮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그는 子息 Franz를 同情하는 讀者에게 正反對의 擲揄같은 것을 備置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마지막 부분에서 아버지 Hermann을 등장시켜 〈넌 끝까지 날 먹이로 삼으려 하고 있으며〉, 〈이 편지에서도 더욱 내게 기생하고 있다〉(H.161)고 反論을 提起케 함으로써 作家 Kafka가 아버지 Hermann이 되어 우쭐한 子息 Franz를 몰아세우는 것이다.

이와같은 父子間의 相剋은 이것이 現象의으로는 항시 子息의 一方的인 敗北樣相을 露呈하고 있지만, Kafka의 一生동안 一貫되는 것으로서, 극단적으로 말하면 Kafka의 一生이 父子間의 關係에 불과하다는 斷定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Kafka 傳記作家들이 한결같이 이 問題를 다룬 것도 충분한 理由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대부분의 資料는 子息이 提供한 것이며, 더우기 그의 하소문인 것이다. 그들은 子息의 하소를 편파적으로 믿으려 하진 않았으나, 그러면서도 아버지의 뉘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결국은 子息의 術數에 말려들고 마는 것이 된다. 子息도 이것에 뒤가 켜겨서인지 〈읽을 뻔 辯護士流의 謀略을 모조리 읽어 주십시오. 이걸 변호사의 便紙입니다〉(M.61)고 Milena에게 警告와 함께 煙幕을 펴고 있다.

辯護士의 知略을 겸비한 교활한 原告의 告訴狀이 여하히 被告의 罪狀을 진실처럼 폭로한다 하더라도 있어야 할 被告에게 辯護士도 없으며, 그 辨明도 단지 原告가 代辨하는 것으로 公正한 裁判은 期待할 수가 없는 것이다. 때문에 傳記作家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被告의 辯護人의 立場이 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유감스럽게 被告인 아버지 Hermann 에겐 手記같은 것도 없으며, 그의 行狀마저도 겨우 原告인 子息의 記錄으로 밖에 남아있지 않는 것이다. 作家는 이따금 子息의 立場에 서고 있으며, 原告는 自身이 변호사라는 것을 忘却하고 絶叫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이 便紙가 難解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처음부터 不可思議한 文書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作品이 아닌 私信이지만,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作品以上으로 作品的인, 아니 오히려 作品이나 私信의 形式을 超越한, 그보다도 形式이라는 테두리가 無意味하게 된, 그 둘이 그대로 같은 하나의 文學世界에 속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一例라 할 수 있다. 端的으로 말하면 Kafka 文學의 하나의 뛰어난 達成인 것이다. 요컨대 Kafka 文學은 이와같은 形式으로 단지 <쓰여진 것>의 價値가 問題가 되는 文學이기 때문인 것이다.



- 略 字 表
- H. =Hochzeitsvorbereitungen auf dem Lande und andere Prosa aus dem Nachlaß.
 - T. =Tagebücher 1910~1923.
 - B. =Beschreibung eines Kampfes, Novellen, Skizzen, Aphorismen aus dem Nachlaß.
 - E. =Erzählungen.
 - Br. =Briefe 1902~1924.
 - M. =Briefe an Milena.
 - P. =Der Prozeß.
 - S. =Das Schloß.
 - Brod =Über Franz Kafka, Fischer Taschenbuch Verlag 1974.
 - Emrich=Franz Kafka, Athenäum Verlag 1970.

Bibliographie

- Franz Kafka Gesammelte Werke, Hg. von Max Brod, Taschenbuchausgaben in 7 Bänden, Fischer Taschenbuch Verlag 1976.
- Bd. 4 : Erzählungen.
- Bd. 5 : Beschreibung eines Kampfes, Novellen, Skizzen, Aphorismen aus dem Nachlaß.
- Bd. 6 : Hochzeitvorbereitungen auf dem Lande und andere Prosa aus dem Nachlaß.
- Bd. 7 : Tagebücher 1910~1923.
- Franz Kafka : Briefe 1902~1924, Hg. von Max Brod, Fischer Taschenbuch Verlag 1975.
- Ders. : Briefe an Milena, Hg. von Willy Haas, Fischer Taschenbuch Verlag 1974.
- Ders. : Der Prozeß, Fischer Taschenbuch Verlag 1974.
- Ders. : Das Schloß, Fischer Taschenbuch Verlag 1974.
- Max Brod : Über Franz Kafka, Fischer Taschenbuch Verlag 1974.
- W. Emrich : Franz, Kafka, siebente unveränderte Auflage, Athenäum Verlag, Frankfurt am Main. Bonn 1970.
- H. Binder : Kafka Kommentar zu den Rezensionen, Aphorismen und zum Brief an den Vater, Winkler Verlag, München 1977.
- H. Politzer : Franz Kafka. Der Künstler, Suhrkamp Taschenbuch Verlag, Baden-Baden 1978.
- K. Wagenbach : Franz Kafka, Rowohlts Monographien Hg. von K. Kusenberg 1978.
- 拙稿 : 韓國海洋大學論文集 第14輯(人文社會科學篇), 1979.
- 拙稿 : 國立濟州大學論文集 第9輯(人文社會科學篇), 1977.